

문해력 진단 검사

# 문해력

4학년

( )초등학교  
( )학년 ( )반 ( )번

## [유의 사항]

1. 문제지의 전체 면수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선생님께 말씀하세요.
2. 표지에 학교, 학년, 반, 번호를 정확히 작성해 주세요.
3. 별도의 답안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안은 문제지의 ( ) 안에 정확히 작성해 주세요.
4. 마지막 문항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5. 시험이 끝나면 문제지 전체를 제출해 주세요.

<정답>

번호	정답
1	①
2	②
3	④
4	③
5	③
6	①
7	①
8	③
9	③
10	①
11	②
12	③
13	②
14	④
15	②
16	④
17	②
18	③
19	④
20	①
21	②
22	②
23	③
24	④
25	③

<정답 문항 수에 따른 수준 구분>

맞은 문항 수	수준
11개 ~ 25개	'기초' 수준
0개 ~ 10개	'기초 미달' 수준

# 4학년

[1~2]

옛날 우리 조상은 하늘을 살펴보거나 동물의 움직임을 보고 날씨를 예측했다. 날씨에 관한 조상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지혜는 속담 속에도 잘 녹아 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라는 속담이 있다. 제비는 많은 시간을 하늘에서 보내는 편이고, 날아가면서 곤충을 낚아채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비가 오기 전, 공기 중에 물기가 많아지면 잠자리, 파리, 벌과 같은 곤충들은 날개가 무거워져 땅 가까이 내려오게 된다. 그래서 제비 역시 먹이를 잡기 위해서 비 오기 전에는 낮게 나는 것이다. 또 ‘개미가 이사하면 비가 온다.’라는 말도 있다. 개미는 비가 오기 전 알을 물고 안전한 곳으로 줄지어 이동한다. 이렇게 제비가 낮게 날거나 개미가 이동하는 모습은 빗방울이 떨어질 징조가 될 수 있다.

반면 줄을 치는 거미와 새벽안개를 봤다면 우산 없이 나들이를 가도 좋다. 거미는 날씨가 흐려서 곤충들의 활동이 뜸해지면 줄을 치지 않다가 맑은 날에는 줄을 치고 곤충을 잡는다. 그래서 ‘거미가 줄을 치면 날씨가 좋다.’라는 속담이 생겨났다. 또, ㉠바람이 없고 고요한 맑은 날에는 밤과 이른 새벽에 안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속담도 있다.

이 외에도 비와 맑은 날씨를 짐작하는 속담으로는 ‘아침 무지개는 비, 저녁 무지개는 맑음.’,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올빼미가 울면 맑다.’ 등이 있다. 날씨를 알려주는 똑똑한 속담은 조상의 지혜가 담긴 일기예보라고 할 수 있다.

1.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거미가 줄을 친다.
  - ② 아침에 무지개가 떴다.
  - ③ 개미가 줄지어 이동한다.
  - ④ 개구리 우는 소리가 잘 들린다.
2. ㉠과 관련된 속담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가을 안개에 풍년 든다.
  - ② 새벽안개가 짙으면 맑다.
  - ③ 서리가 많이 내린 날은 맑다.
  - ④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3~4]

지난 토요일, 아빠와 함께 김치박물관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김치 만들기 체험장으로 들어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알록달록 나박김치’를 만들었다. 칼로 무와 당근을 조심조심 썰고, 계량 숟가락으로 양념도 만들었다. 통에 김치를 넣고, 뚜껑에 날짜와 이름까지 쓰니 드디어 완성! 내 손으로 만든 김치라니, 뿌듯한 마음에 웃음이 났다. 얼른 가족들과 함께 맛보고 싶었다.

다음은 전시관으로 가서 김치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우리 조상은 삼국 시대 이전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채소를 소금이나 장, 식초 등에 절인 김치를 먹다가 조선 시대에 이르러 ㉡고 한다.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깍두기, 갓김치, 동치미 등 김치의 종류가 200가지가 넘는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또 지역별로 김치를 만드는 방법과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우리 몸에 유익한 김치 유산균을 현미경으로 직접 보는 활동도 기억에 남았다.

끝으로 우리는 기념사진을 찍고 박물관을 나섰다. 김치박물관은 김치에 관한 다채로운 내용을 배우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오늘 체험을 통해 김치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자랑스러운 전통음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3. 글쓴이가 김치박물관에서 한 일이 아닌 것은?-- ( )

- ① 나박김치를 만들고 통에 담았다.
- ② 김치 유산균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 ③ 박물관을 나서기 전, 기념사진을 찍었다.
- ④ 깍두기, 갓김치, 동치미를 직접 맛보았다.

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문장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 )

• <보기> •

한식에 빠져서는 안 될 고추와 마늘! 단군 신화에도 등장하는 마늘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전해지지만, 고추가 들어온 건 조선 시대라고 해요.

- ① 여럿이 힘을 모아 김장을 하였다
- ② 마늘과 고추의 저장 방법을 고민하였다
- ③ 고춧가루를 넣은 빨간 김치가 만들어졌다
- ④ 양반과 서민 모두가 마늘을 넣은 김치를 즐겨 먹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나요? 우리는 보통 기쁠 때나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물이 나는 이유는 더 다양해요. 눈물은 눈물이 나는 이유에 따라 크게 기본적 눈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항상 기본적 눈물로 덮여 있어요. 기본적 눈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 눈 표면을 덮어 보호막을 만들어요. 이 보호막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이물질이 눈에 바로 닿지 않도록 해 줘요. 그리고 기본적 눈물은 눈의 표면에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먼지나 세균을 씻어 줘요.

반사적 눈물은 먼지나 매운 기운 등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눈물을 말해요. 반사적 눈물은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서 이물질을 배출하고, 눈을 진정시켜요.

정서적 눈물은 기쁨, 슬픔 등의 감정에 따라 흘리는 눈물을 말해요. 정서적 눈물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호흡과 심장 박동 수를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알고 보면 눈물은 소중한 눈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안정시켜 주는 고마운 존재랍니다.

5. 눈물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① 감정에 따라 흘리는 눈물을 정서적 눈물이라고 한다.
- ② 기본적 눈물은 눈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눈에 영양을 공급한다.
- ③ 눈물은 양에 따라 기본적 눈물, 반사적 눈물, 정서적 눈물로 나눌 수 있다.
- ④ 반사적 눈물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려 눈을 보호한다.

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읽고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 <보기> •

양파를 썰 때 눈물이 나는 까닭은 양파에 들어 있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평소에는 눈을 자극하지 않다가 양파를 썰면 눈을 따갑게 자극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파를 썰면 이 물질이 눈에 닿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 ① 양파를 썰 때 흐르는 눈물은 반사적 눈물에 속하는구나.
- ② 양파를 썰 때 흐르는 눈물은 눈의 표면에 영양을 공급하는구나.
- ③ 양파를 썰 때 흐르는 눈물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 ④ 양파를 썰 때 흐르는 눈물은 아주 적은 양으로 눈 표면을 덮어 보호막을 만드는구나.

“어느 쪽이 부엉이일 것 같아?”

책 표지의 그림을 보여 주며 친구가 퀴즈를 냈다. 서로 다른 두 동물의 얼굴 반쪽씩을 나란히 붙인 그림이었다. 부엉이의 생김새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답을 모르겠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니 친구가 책을 빌려 주며, 답을 찾아보라고 했다.

책 ‘사소한 구별법’에는 생김새가 비슷한 동식물을 작은 차이로 구별하는 방법이 담겨 있었다. ㉠부엉이와 올빼미, 재규어와 표범, 진달래와 철쭉 등과 같이 생김새가 비슷한 동식물의 차이점이 쉽게 설명되어 있었다. 또 세밀한 그림이 있어서 다른 그림 찾기를 하듯 재미도 있었다.

대부분이 신기했지만, 특히 부엉이와 올빼미, 재규어와 표범, 진달래와 철쭉의 구별법이 흥미로웠다. 먼저 부엉이는 올빼미와 달리 얼굴을 꾸미려고 세운 깃이 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재규어와 표범도 무늬 안에 점이 있으면 재규어, 점이 없으면 표범이다. 깃 하나로, 점 하나로 구별되는 자연의 세계라니..... 비슷해 보였던 동물들이 작은 차이를 알고 나니 전혀 다른 동물로 보였다. 이제는 등갯길에 보았던 분홍색 꽃이 진달래인지 철쭉인지도 구별할 수 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꽃만 있으면 진달래, 꽃과 잎이 함께 있으면 철쭉이다. 진달래는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질 무렵에 잎이 나기 때문이다.

익숙했던 동식물도 책을 읽고 나니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다른 사물과 자연을 볼 때도 천천히 잘 살펴봐야겠다. 친구에게 책을 돌려주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정답은 왼쪽!”

7. 글쓴이가 책에서 본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① 올빼미는 얼굴을 꾸미려고 세운 깃이 있다.
- ② 재규어는 무늬 안에 점이 있다.
- ③ 진달래는 꽃이 질 무렵에 잎이 난다.
- ④ 철쭉은 꽃과 잎이 함께 나 있다.

8. ㉠과 같은 예로 거리가 먼 것은?.....( )

- ① 연꽃과 수련
- ② 물개와 수달
- ③ 뱀과 고양이
- ④ 도롱뇽과 도마뱀

옛날 옛적, 전우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전우치는 도술에 능해서 바람을 다스리고 원하는 때에 비를 내릴 수 있었지요. 또한 마음을 먹기만 하면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우치는 자신의 도술을 함부로 쓰지 않고, 가난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만 사용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계속된 흉년과 도적 떼의 침략으로 백성들은 몹시 굶주리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게 화가 난 전우치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전우치는 신선으로 변신을 하고 임금을 찾아갔어요.

“임금은 나의 명령을 들어라. 하늘나라 궁궐에 사용할 황금 대들보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눈앞에 있는 신선이 전우치인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임금은 하늘의 명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고개를 조아렸어요. 임금이 황금 대들보를 바치자 전우치는 그것을 팔아 곡식을 마련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은 당장 전우치를 잡아 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임금이 보낸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전우치의 집을 단단히 에워싸고는 외쳤어요.

“네 이놈, 전우치는 들어라. 너 이제 ㉠독 안에 든 쥐다.”

전우치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고는 주문을 외우더니 자신의 몸을 개미만큼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우치는 호리병으로 속 들어가 숨어 버렸어요. 눈치 빠른 장군은 이것을 보고 전우치가 도망갈세라 병의 주둥이를 막고는 곧장 호리병을 임금에게 바쳤지요.

“아이고, 전하 살려 주시옵소서.”

호리병 속에서 들리는 전우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며 임금이 물었어요.

“어찌하여 감히 내 황금 대들보를 도둑질하였느냐?”

병 속의 전우치가 대답하였어요.

“지금 흉년이라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울부짖는 백성을 보셨다면 전하께서도 분명 ㉡. 그런데 어찌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까?”

왕은 당당한 전우치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전우치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여봐라, 저 병을 깨뜨려 보아라.”

군사들은 전우치가 들어 있는 병을 산산조각 내었어요. 하지만 전우치는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지요. 궁궐에서 나온 전우치는 홀연히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9. 전우치가 황금 대들보를 가져간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 ② 임금이 부리는 군사들과 나누어 가지려고
- ③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 ④ 신선이 지낼 수 있는 멋지고 근사한 집을 지으려고

10. ‘㉠독 안에 든 쥐’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 ( )

- ① 꼼짝할 수 없이 갇힌 상황
- ② 아는 것이 없어 궁금해하는 상황
- ③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
- ④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황

11. ㉡의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도적 떼의 침략을 눈감아 주셨을 겁니다
- ② 황금 대들보를 팔아 백성들을 살리셨을 겁니다
- ③ 세상을 구하기 위해 도술을 배우셨을 겁니다
- ④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을 풀어 주셨을 겁니다

[12~14]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궁궐로 체계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복궁 안에는 여러 건물이 있는데, 왕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하는 외전과 왕족들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인 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정전과 사정전은 대표적인 외전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건물로, 부지런히 나랏일을 돌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거나 왕위 즉위식, 혼례식 등 나라의 중요한 행사와 의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나랏일을 논의하며 일을 하던 곳으로, 정치를 올바르게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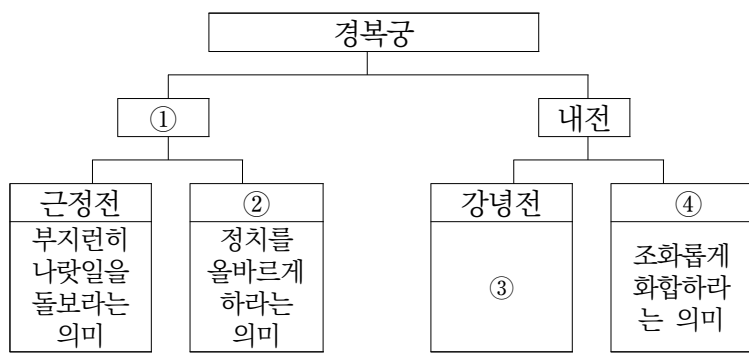
사정전 바로 뒤에 위치한 강녕전과 교태전은 내전에 속합니다. 강녕전은 왕이 개인적인 생활을 하며 잠을 자는 곳으로, 늘 편안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교태전은 왕비가 자는 곳입니다. '교태'는 '조화롭게 ㉠화합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왕과 왕비의 사이에서 자손이 많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경복궁은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을 구분하였지만, 서로 거리를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궁궐이었습니다.

14.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경복궁에서의 생활 모습을 짐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① 사정전에서 임금은 신하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② 여러 신하가 모인 가운데 근정전에서 세자 즉위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 ③ 온종일 나랏일을 돌본 임금은 강녕전에 들어가 피로를 풀고 잠을 청하였다.
- ④ 외국에서 사신이 방문하자 신하들은 예의를 갖추어 교태전으로 안내하였다.

12. 위글의 내용을 정리한 표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



- ① 외전
- ② 사정전
- ③ 자손이 많기를 바라는 의미
- ④ 교태전

13. '㉠화합하다'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

- ① 좋지 않은 감정을 풀다.
- ②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다.
- ③ 환하게 빛나며 곱고 아름답다.
- ④ 좋은 점이나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다.

[15~17]

초등학생도 정해진 날짜에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받는 것이 좋다. 필요한 학용품이나 갖고 싶은 물건을 구입할 때, 친구의 생일 선물을 사거나 방과 후에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때 등 초등학생에게 돈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7세 학생의 83.3%가 용돈을 받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생이 일정하게 용돈을 받을 때의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돈을 관리하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 다음번 용돈을 받기까지 여러 날이 남았는데, 쓸 돈이 없어서 곤란해지지 않으려면 미리 계획해서 돈을 알맞게 나누어 써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날짜에 용돈을 규칙적으로 받으면 초등학생이 자신의 지출 상황을 점검하고, 물건을 꼭 사야 하는 이유를 꼼꼼이 고민해 봄으로써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둘째, 경제에 대한 관심과 돈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 용돈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돈에 대한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초등학생이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아서 관리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돈을 소중히 하고 계획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제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용돈을 받는 것이 좋다.

1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

- ① 용돈을 규칙적으로 받아 관리하면 돈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 ② 쓸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받는 것이 돈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는 데 좋다.
- ③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7세의 절반 이상이 용돈을 받고 있다.
- ④ 초등학생이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받으면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다.

16.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① 많은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문 조사 결과로 제시하였어.
- ② 12세 미만 초등학생의 용돈과 관련된 통계 자료는 없는지 더 찾아보고 싶어.
- ③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현명한 습관을 기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
- ④ 초등학생이 용돈을 안 쓰는 것이 책임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의해.

17. ‘㉠소비’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절약하여 모아 둬.
- ② 돈이나 물건, 시간, 노력 등을 들이거나 씬.
- ③ 사람, 동식물, 물건 등을 보살피거나 통제함.
- ④ 앞으로 할 일의 과정, 방법 등을 미리 생각함.

[18~19]

청바지는 우리가 자주 입는 옷 중 하나입니다. 청바지는 전 세계적으로 1초에 73장이 판매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바지를 만들고 세탁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바지를 만들거나 세탁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첫째, 청바지를 만드는 데 많은 양의 물이 낭비됩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청바지 한 벌을 염색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약 7,000리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4인 가족이 5~6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이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청바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청바지는 40단계 이상의 약품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쓰인 화학 물질이 지하수와 강물로 흘러 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셋째, 청바지를 세탁할 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바지를 한 번 세탁할 때 미세 플라스틱 약 5만 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떠돌게 되고, 이를 삼킨 바다 생물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18. 밑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청바지를 즐겨 입는 이유
- ② 친환경 청바지를 만드는 방법
- ③ 청바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
- ④ 청바지의 염색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19. 밑글과 다음 <보기>에서 제시한 환경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 <보기> •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청바지뿐만이 아닙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약 2,700리터입니다. 또한 면 티셔츠를 염색하는 과정에서도 화학 물질과 약품이 사용되며 오염된 폐수가 발생합니다.

- ① 화려하게 염색된 옷을 입으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돼.
- ② 옷을 세탁할 때 물을 아껴 쓰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 ③ 환경을 생각하면 면으로 만든 바지를 사야 해.
- ④ 환경을 생각해서 꼭 필요한 옷만 사고, 옷을 쉽게 버리지 않아야 해.

[20~22]

옛날, 어느 마을에 젊었을 때부터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박바우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때는 고기 파는 사람을 천민으로 여겨 양반들이 반말을 하였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 먼저 온 양반은 박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우야, 쇠고기 한 근만 다오.”

“알겠습니다.”

박 노인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대충 고기를 잘라 주었다.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양반은 깍듯한 말투로 부탁하였다.

“박 서방, 쇠고기 한 근만 주시오.”

“아이고, 네. 조금만 기다리시지요.”

박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하였고,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뭉텅 잘라 주었다.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고기도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았다.

그는 박 노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

“야, 바우야! 똑같은 한 근인데, 어쩌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 말 좀 해 봐라!”

박 노인이 태연히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 놈이 자른 것이고, 이분 것은  자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20. ㉡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늦게 온 양반이 노인에게 깍듯하게 말했기 때문에
- ② 먼저 온 양반의 고기는 다른 사람이 잘랐기 때문에
- ③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기 때문에
- ④ 먼저 온 양반이 주문한 고기의 양이 더 적었기 때문에

21. ‘㉠뭉텅’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 )

- ① 칼로 아주 잘게 다진 모양
- ② 한 부분이 제법 크게 잘리는 모양
- ③ 깍두기처럼 네모반듯하게 썬 모양
- ④ 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낸 모양

22.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 )

- ① 바우 놈이
- ② 박 서방이
- ③ 젊은 양반이
- ④ 고기 파는 천민이



[23~25]

각각 11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드넓은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경기, 바로 축구이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면 이를 지켜보는 관중들의 수많은 눈이 작은 축구공 하나만을 쫓는다.

축구공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었다. 아주 옛날에는 바람을 불어넣은 돼지의 방광을 사용하거나 지푸라기를 동그랗게 뭉치<sup>㉠</sup>는 등 자연의 재료로 축구공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죽 등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긴 사각형으로 가죽 조각을 잘라 손으로 바느질하여 이어 붙이<sup>㉡</sup>는 방식으로 축구공을 만들었다.

오늘날의 축구공은 예전과는 달리 가벼운 인조 가죽을 사용한다. 인조 가죽은 많은 양의 비를 맞아도 끄떡없도록 뛰어난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축구공을 만드<sup>㉢</sup>는 재료로 적합하다. 또한, 오늘날에는 열을 이용하여 가죽 조각을 ㉣접착하는 방식으로 축구공을 만들기 때문에 제작이 편리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들이 경기 중 축구공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보내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작은 전자 칩을 축구공에 심기도 한다.

이렇듯 축구공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변화를 거듭해 온 축구공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23.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 )

- ① 축구 경기에서 한 팀은 11명으로 구성된다.
- ② 옛날에는 지푸라기를 동그랗게 뭉친 축구공을 사용하기도 했다.
- ③ 동물의 가죽을 바느질하여 만든 오늘날의 축구공은 비를 맞아도 끄떡없다.
- ④ 오늘날의 축구공 중에는 축구공의 속력과 이동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있다.

24. 밑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 )

- ① 옛날 축구공의 재료
- ② 축구공에 숨겨진 과학
- ③ 인조 가죽 축구공이 필요한 이유
- ④ 축구공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의 변화

25. ‘㉣접착하는’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밑글에서 알맞게 찾은 것은? ----- ( )

- ① 불어넣은
- ② 뭉치는
- ③ 붙이는
- ④ 만드<sup>㉢</sup>는